



글로벌 전자무역문서 거래 50,000건 넘어

PAA 국가의 전자무역 시스템간 전자문서 교환을 위한 글로벌 전자무역 인프라를 구축 중

산업자원부가 국내무역업체와 해외무역업체 사이의 서류교환이 전자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건수가 '06년 말 현재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국내에 머물던 전자무역 사업이 해외로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하이스코, SK네트웍 등 20개 국내 무역업체 등이 일본의 스미모토 상사, 중국의 바오산 강철 등 해외 51개 무역업체 등과 연간 54,649건('06년 기준)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또, 매년 추가 업체 선정과 함께, 업종별(물류, 철강 등) 서비스 중점개발을 통해 글로벌 전자문서 거래건수 증대가 예상되며, 올해는 10만건 이상이 전자적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하이스코의 경우, 문서관리 전산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가 및 표준화된 전자문서 교환에 따른 관리 효율성 증가라는 정성적 효과이외에, 구매직접비 연간 3.6억원 절감, 구매간접비 연간 13백만원 절감 및 업무처리시간 6시간/1인/1일에서 30분/1인/1일 단축 등의 정량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03년부터 “동아시아 전자무역 사업자 협의체” 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 국가의 전자무역 시스템간 전자문서 교환을 위한 글로벌 전자무역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그리고, 구매주문서(P/O),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Advice) 등 14종에 대한 표준 전자문서를 개발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다.

또한, 적하목록 자동신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내 포워더들이 해외로부터 선하증권(B/L)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신,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자동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워더들은 수동으로 화물관련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 시킬 수 있다.

글로벌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자간 협력회의인 APEC 전자상거래회의에 참석하여 대만, 싱가포르 등과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FTA에서는 양국의 전자 무역행정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양국간 전자문서 거래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국내의 전자무역 인프라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APEC 2005 REPORT에 따르면 싱가포르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인 "World Advanced"로 평가받은 적이 있다. 대부분 국가의 전자무역 인프라는 통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상역·물류·통관 등 모든 무역 프로세스에 대해 전자무역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

전자무역 인프라의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태국, 몽골,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및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업무재설계 및 정보전략계획(BPR/ISP) 수행 완료하였다.

파나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무역 해외 로드쇼를 진행하였으며, ASEAN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SEAN 전자무역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 확대 할 계획이다.

< 글로벌 전자무역 >

